

멕시코에 항암제 수출... "K제약 선봉장 될 것"

강덕영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회장

멕시코 정부와 수백억원 규모 협의 내년부턴 미국에도 항암제 판매 올해 해외 매출 50% 늘려잡아

개량신약 5년내 7개 추가 출시 코로나 치료제 내년 초 시판 목표



강덕영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회장이 수출 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병연 기자 misaon@hankyung.com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수백억원 규모의 항암제를 멕시코에 수출한다. 구대 당사자인 멕시코 정부가 인도, 프랑스, 독일 등 해외 의약품과 비교한 결과 한국산(産)의 가성비(가성비)가 가장 높다고 판단한 덕분이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동남아시아에 머물렀던 해외 무대를 미국과 중남미 등지로 확대해 K제약·바이오의 선봉장으로 올라선다는 목표를 세웠다.

◆성장동력은 수출과 개량신약 강덕영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회장은 4일 기자와 만나 "최근 방한한 멕시코 정부 고위관계자들과 항암제 19종을 수출하는 방안을 협의했다"며 "성사되면 올 6월부터 4년 동안 수백억원어치를 수출한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멕시코 정부는 마피아(마약)가 장악하고 있는 현지 의약품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가 직접 구매하는 정책을 세웠다"며 "멕시코 정부를 상대로 KOTRA가 가격 대비 품질은 한국

의약품을 따를 곳이 없다"고 마케팅해준 덕분에 좋은 기회를 얻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매출 15조원 규모인 멕시코 의약품 시장은 매년 10% 넘게 성장하는 유망시장이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멕시코를 교두보로 중남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선진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에 맞게 짓고 있는 세종 2공장이 오는 11월 준공되면 이곳에서 생산하는 항암제는 내년부터 미국에도 수출된다. 강 회장은 "올해는 회사의 사업 영토가 베트남 등 동남아를 넘어 미주 지역으로 본격 확대되는 해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회사는 올해 수출 목표를 작년보다 50% 이상 늘려잡았다.

강 회장은 '개량신약 평가란 명성에

결맞게 현재 38%인 개량신약 매출 비중을 2023년까지 50%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했다. 13개년 개량신약 수는 2025년까지 20개로 늘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개량신약 비중이 높은 덕분에 매년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올리고 있다"며 "이렇게 벌어들인 돈은 신약 개발에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

이 회사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18.6%(매출 2160억원·영업이익 401억원)로 업계 최상위권이다. 마진이 박한 '도입 의약품(해외 오리지널 의약품 도입·판매)이 없는 데다 복제약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신약과 코로나 치료제 개발도 순항 중 강 회장은 현재 개발 중인 3개 신약에 대해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미래"라고 소

개했다. 첫 번째는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개발하고 있는 '폴로유사인산화효소(PLK-1) 저해제'다. 단백질의 일종인 PLK-1을 억제해 암세포의 증식과 전이를 막아주는 치료제다. 현재 유방암을 적용 증으로 임상 1상 시험을 하고 있다.

두 번째는 임상 2상에 진입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NASHD). NASH 시장 규모는 6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지만 세계적으로 아직 아팔다 할 치료제가 없는 상태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2016년 서울대로부터 류머티즘 관절염 치료제로 쓰이는 '오라노핀'을 활용하는 기술을 넘겨받아 연구를 하고 있다. 세 번째는 서울대 및 화학연구원과 함께 개발 중인 새로운 항암제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별도 법인을 세운 뒤 외부 투자를 받아 직접 글로벌 임상을 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도 순항 중이라고 했다. 오는 6월 임상 2상 시험계획(IND) 국내 승인이 목표다. 동물실험 결과 상당한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이르면 내년 초 조건부 허가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 회장은 "코로나 경증 환자는 물론 중증과 중증 환자 모두 복용할 수 있는 치료제로 개발 중"이라며 "1회 처방에 200만~300만원에 달하는 항체치료제와 달리 환자들이 1만~2만원(본인부담금 기준)에 구입할 수 있는 만큼 개발에 성공하면 상당한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상현 기자 ohyeah@hankyung.com

새집증후군 잡는 '참숯페인트'

참길, 수출 늘어 매출 3~5배 전망



봄 이사철을 맞아 새집증후군 등 유해물질 배출을 막을 수 있는 기능성 페인트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 참길은 천연 숯을 이용한 새집증후군 방지 페인트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중소기업이다. 이 기술 덕분에 올해 수출이 크게 늘어 매출이 작년보다 3~5배 증가할 전망이다.

참길은 '바르는 액상참숯'으로 유명한 기능성 페인트 '액티바707'과 고성능 단열 페인트 '에코셀라(사진)' 등을 제조하고 있다. 올 하반기 중국과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으로 수출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술목 참길 대표는 "새집증후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중국에서 액티바707에 대한 수요가 크다"며 "최근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큰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지에서 단열 성능이 뛰어난 '에코셀라' 수출이 곧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테리어업계에서 30여 년을 근무해 온 박 대표는 새집증후군 아토피 등으로 피해를 본 어린이들을 보고 제품 개발을 결심해 5년간 연구 끝에 액티바707을 개발했다. 그는 참숯을 활용한 기능성 페인트에 대한 세계 원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환경영양제 국제 표준인 ISO14001도 세계 최초로 획득했다. 그는 "평소 불쾌한 것을 느끼고도 머리를 써서 이를 해결하려 하지 않는 것은 큰 잘못이라는 생각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했다.

액티바707은 전남 담양, 강일 등의 참

숯과 대나무숯 등이 주요 원료다. 인체친진대사에 도움을 주는 게르마늄, 칼슘, 흡이온석, 마그네슘, 아연 등 20여 가지 물질에 식물성 접착제를 함유해 '식품첨가제'로 허가될 정도로 인체에 안전하다는 게 박 대표의 설명이다. 인테리어 후 나오는 각종 유해물질을 막는 것을 비롯해 공기 탈취, 습도 조절, 음이온 발생, 전자 차단, 라돈 차단 등의 효과를 낸다. 아토피를 유발하는 페인트 냄새와 유독물질 배출도 없다. 대한아토피협회 인증도 받았다. 모기기피 물질이 들어가 모기기피를 억제하는 기능도 있다. 생활방사능 차단 효과도 크다.

'바르는 벽지' 에코셀라는 단열 기능에 선 국내 최고 수준이라고 박 대표는 설명했다. 그는 "시중에 나온 단열 페인트 대부분이 내화성이 취약하지만 에코셀라는 섭씨 600도 이상의 온도를 견디도록 설계됐다"며 "단열 능력 면에서도 세계 5개국 제품과의 비교 실험에서 최고 성능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인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만능 빗자루 입소문에 44억 끌어담은 '쓰리잘비'

으뜸중기 큐어라이프

빗자루·와이퍼·스크래퍼 결합 호주·프랑스·독일 등 10개국 판매



고 둘째 미세모 빗날은 반려동물 털을 쓸 어내는 데 적합하다"고 소개했다. 이어 "셋째는 돌돌 말린 먼지를 다시 긁어 모아주는 등 빗날마다 고유한 역할이 있고 물을 약간 묻혀 주면 청소가 한층 더 쉬워진다"고 덧붙였다.

이 빗자루는 국내에서는 오픈마켓을 비롯한 90여 개 채널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일본 호주 프랑스 독일 등에서 현지 홈쇼핑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 성능이 입소문을 탄 덕분에 2018년 970만 원이었던 매출이 이듬해 33억원으로 늘었고, 작년에는 44억원으로 늘어났다.

김병연 기자 bk11@hankyung.com

쓰리잘비 하나 가격이 약 2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에만 22만 개가량을 팔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학에서 문헌정보학과를 공부한 양 대표는 창업 1년여 전 사서공무원 시험에도 합격했다. 그럼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포기하고 창업을 택한 건 30년 가까이 사업을 한 부친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배운 기업을 정진 영향이 컸다고 한다. 양 대표는 "청소의 질을 높이면서 수출을 계속 늘려나감으로써 한국의 국위 선양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등 첨단 청소기 경쟁이 뜨거워 가운데 손에 들고 사용하는 전통적인 빗자루로 인기몰이에 나선 중소기업이 있다. '쓰리잘비'로 불리는 빗자루를 해외 10여 개 국가에 수출하고 있는 큐어라이프다. 2018년 이 회사를 창업한 양혜정 대표(사진)는 "쓰리잘비는 방과 거실뿐 아니라 화장실까지 함께 청소할 수 있는 혁신적인 빗자루"라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명하다"고 4일 말했다. 쓰리잘비는 빗자루, 와이퍼, 스크래퍼 등 서로 다른 쓰임새의 청소 용구 세 가지(쓰리)를 하나에 담았다. 의미다. 당초 육질 청소를 겨냥해 만들었는데 방과 거실 청소는 물론 반려동물 털 청소에도 유용하다는 게 입소문 나면서 인기가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양 대표는 그 비결로 "특히 받은 4종날 구조를 들었다. 그는 "바닥과 닿는 부분이 네 개의 빗날로 구성된 고무로 돼 있다"며 "첫째 빗날은 바닥과 마찰력을 통해 먼지가 뭉치게 해 주

KAI·코렌시아엠·티엘비 등 3개 컨소시엄 '선도형 디지털 클러스터'에 선정

중기부, 최대 64억 지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기차 부품 업체인 코렌시아엠, 반도체 부품업체인 티엘비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선도형 디지털 클러스터에 선정돼 각각 64억원의 지원을 받게 됐다.

중기부는 선도기업과 협업기업을 클러스터로 묶어 지원하는 '선도형 디지털 클러스터'에 KAI·코렌시아엠·티엘비 등 3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신설된 이 사업은 스마트공장 간 데이터와 네트워크 기반의 상호 연결을 통해 공동 자재 관리부터 수주·생산과 유통·마케팅 등 협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컨소시엄별로 협업 사업회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64억원까지 지원한다.

경남 사천에 있는 국내 최대 항공기 제작사 KAI는 30개 협력사와 항공산업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가상 공정

인공지능 기반 원고와 연동해 협업기업 간 지능형 생산 공정을 구축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최적화된 공급망 관리(SCM), 품질 고도화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부산지역 중소기업인 코렌시아엠은 14개 협력사와 함께 전기차부품 디지털 클러스터를 조성하게 된다. 수주, 생산, 재고, 납기 등 전 공정에 걸쳐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가능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하나의 공장처럼 운영하고 인공지능(AI), 머신러닝 기반으로 공정제어와 품질 예측시스템 등을 운영한다.

경기 안산의 인쇄회로기판(PCB) 전문기업 티엘비는 15개 협력사와 반도체 부품 디지털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산업용 사물인터넷(IoT)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을 활용해 이상징후 감지 즉각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

인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코오롱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4분기 美 FDA 환자 투약 재개

코오롱티슈진이 성분 논란으로 국내 품목 허가가 취소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에 대한 미국 임상시험을 연내 재개하기로 했다.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인상을 재개해준다고 통보한 지 1년 만에 구체적인 일정이 나왔다. 4월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코오롱티슈진은 올 4분기 미국에서 인보사에 대한 임상 3상 환자 투약을 재개하기로 하고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이다. 코오롱티슈진은 코오롱 및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관계사로, 인보사 개발과 미국 임상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인보사는 2019년 3월 주성분 중 하나가 허가 사항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 국내 품목 허가가 취소됐고, 미국 임상 3상도 잠정 중단됐다. 하지만 작년 4월 FDA가 "임상 보류를 해제한다"는 서한을 코오롱 측에 보내면서 미국 임상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코오롱은 2025년까지 임상을 완료할 계획이다. 오상현 기자 ohyeah@hankyung.com

한경미디어그룹
hankyung
JOB & JOY
Vol.208 2021.04.12~04.25

스타트업 제조기
부산디자인진흥원
예비 유니콘
육성 박차

magazine.hankyung.com

커버 :: 취업 바늘구멍 풀기
• 2021 상반기 채용 스케치 '공채가름' 속 삼성은 예년대로... 스타트업도 주목하라
• 2021 상반기 자소서 키워드는 '정함' 인사담당자에게 듣는 자소서 작성팁
• 석의현 커리어백 대표
• 최정철 BGF로직즈 주임
• 권유정 테이스티나인 선임사원

캠퍼스 이슈 :: 창업에 강한 대학 (충청권)
• 순천향대·충북대·한남대·한밭대·호서대
• '최대 1억' 지원, 예비·초기창업패키지로 창업자 돕는다

한국경제매거진